

## 그리스도인 25.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

---

Christian 25. The Holy Spirit dwells in Christians.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

만일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롬 8:9)

이 말씀에서,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다 동일하게 성령님을 가리킨다. 그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계신다(the Holy Ghost which is in you, 고전 6:19)고 표현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집으로 삼고 거하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령님의 전(the temple of the Holy Ghost, 고전 6:19)라고도 표현했다.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 영계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엡 1:14).

여기서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the purchased possession)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을 누릴 사람들이 되었다.

여기서 구속을 받을 때까지(until the redemption)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죽은 성도의 몸이 부활하거나 살아있는 성도의 몸이 변화되는 때까지를 말한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은 그 몸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죄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 그때까지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여기서 상속 유업의 보증(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것을 보증해주는 분이시라는 말이다. 마치 어떤 물건을 사면 따라오는 보증서처럼, 물건의 정품여부와 A/S에 대한 권리, 또 무상변상에 관한 것까지 모든 것을 보증해

주는 보증서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지를 입증해주고 또 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보증서와 같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누리도록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내주하셨지만 떠나가실 때도 있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시 51:11)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떠나가지 않으신다. 구속을 받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봉인된다(엡 4:30).

성령님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자.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을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힘,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님께서 인격이심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때문에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나무나 돌 따위는 말하지 못한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롬 8:26)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신음하신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여기서 **중보(intercession)**라는 말은 우리 편에 서신다는 말이다. 이 모든 표현들은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말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럼에도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분께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 그분께서 장래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요 16:13)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롬 8:16)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증언하신다(bearth witness)**는 말은 그분이 인격이시라는 말이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신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8)

꾸짖는 일은 인격이 하신다. 죄에 대해서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의에 대해서라면 하나님의 구원방법이 있지만 외면하는 것,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통치자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말한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꾸짖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때때로 슬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를 때 슬퍼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슬퍼하신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갈 때 슬퍼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의 삶으로 성령님을 억누를 수 있다(살전 5:19).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꾸만 육신적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누르는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꺾지 말라.'고 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중요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인도자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길이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